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6년 6월 첫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지난해 화장품 생산 '10조 돌파'...무역수지도 '1조 흑자'
러시아 화장품시장 'K-뷰티' 꾸준한 인기...유럽산 대체 절호의 기회
국내 포화' 화장품업계, "면세점은 해외시장 돌파구"

법령 정보 12

협회 업무추진현황 14

회원사 뉴스 20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中 화장품 업체 '프로야', 업계 최초 韓 진출 ('16.6.1)

-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로야그룹은 지난해 말 브랜드숍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인 '햅소드'를 설립하고 한국에도 법인을 등록했으며, 브랜드숍 브랜드는 법인명과 같은 '햅소드'로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등 한국 브랜드숍을 벤치마킹해 만들었음
- 업계 관계자는 "프로야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출신을 대거 영입했다"며 "올 상반기 중 중국에 햅소드 1호 매장을 연 뒤 국내에도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이는 등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음

- 관련링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53005172741482&outlink=1>

중국 자외선차단 화장품 표시규정 '확' 바뀐다('16.6.3)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이 5월 26일 '자외선차단 화장품 자외선 차단효과 표시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UVA의 자외선차단 효과 표시는 현재 쓰리 플러스(+++)까지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포 플러스(++++)까지 표기가 가능함

- 관련링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5&nid=196415>

지난해 화장품 생산 '10조 돌파'...무역수지도 '1조 흑자'('16.6.8)

-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년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은 10조7328억원으로 전년보다 19.64% 증가했음
-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 제품이 6조2016억원으로 전체 화장품 생산실적의 57.78%를 차지했다. 색조화장용 1조7225억원(16.05%), 두발용 1조3942억원(12.99%), 인체세정용 8247억원(7.68%) 순임

- 관련링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7_0014135145&cID=10401&pID=10400

‘일시 염모제’ 전성시대 열린다('16.6.3)

- 식약처는 ‘염기성 갈색 16호’ 등 일시적 염모제에 사용가능한 색소 25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음
- 식약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내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시 염모제’의 색소 범위가 같아져 화장품 회사가 국내용과 수출용을 별도로 구분해 생산할 필요가 없어져 제조비용 절감과 원활한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2455/cat/10>

對中화장품 수출 2년새 4배 ↑ ... '따이공' 규제에 주춤 ('16.6.7)

-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 수출액은 1조1800억원으로 2013년 수출액(3098억원) 대비 4배 올랐으며, 2014년 수출액은 6068억원으로 나타났는데 해마다 2배씩 늘어남
-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중국 진출을 견제하고 나섰으며, 특히 화장품 브랜드숍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따이공'(보따리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중소 규모 업체들의 수출길을 막았음

- 관련링크:

<http://news1.kr/articles/?2682923>

식품·화장품 포장디자인 출원 10년 새 2배 늘어('16.6.1)

- 1일 특허청에 따르면 봉지와 상자, 병, 컵 등 포장 용기와 용기 외부에 부착하는 포장용 라벨의 디자인 출원이 2006년 2천708건에서 2008년 3천441건, 2012년 4천539건, 지난해 5천698건으로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음
- 포장 용기 형태별로는 상자 형태가 9천459건(23.2%)으로 가장 많고, 병 9천37건(22.1%), 포장 용기에 부착하는 포장용 라벨 6천382건(15.6%), 봉지 4천629건(11.3%) 등 순임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1/0200000000AKR20160601103900063.HTML?input=1195m>

러시아 화장품시장 'K-뷰티' 꾸준한 인기... 유럽산 대체 절호의 기회('16.6.9)

- 2014년부터 시작된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와 유럽 간의 경제교역이 주춤해지며 유럽산 중심의 러시아 화장품 시장이 대체 브랜드를 찾아 나서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품질도 우수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한국 화장품으로 서서히 시선을 돌리고 있음
- 아직까지 러시아는 국내 화장품업체의 주요 5대 수출국가에는 포함되지 못하지만, 피부과 화장품 등 전문 화장품군은 특별한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음

- 관련링크: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609.010150748110001>

명동 로드숍, 유커 인기 화장품은? '달팽이' '마스크' 강세... 한방크림 부상 중 ('16.6.3)

- 명동에서는 유커(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달팽이 크림과 마스크팩 인기는 여전히 높으며, 로드숍은 최근엔 홍삼을 넣은 달팽이 크림 등 관련 제품들이 부상하고 있음

- 관련링크: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959>

'국내 포화' 화장품업계, "면세점은 해외시장 돌파구"('16.6.2)

- 2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이제 면세점은 업계에선 빼놓을 수 없는 판매창구가 됐으며, 이는 업계 '큰손'인 유커들의 구매 대부분이 국내 면세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임
- 계는 "새로운 시장을 찾거나 판매채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중국 등 해외 고객과 시장에 맞닿아 있는게 면세점이다보니 업계에는 돌파구인 셈"이라고 했음

- 관련링크: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340>

잘나가는 국산 화장품...맥 못추는 일본 화장품('16.6.6)

-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일본 화장을 넘어서고 있으며, 일본산 화장품 수입액은 최근 5년새 29% 줄었지만, 반대로 국산 기초 화장품의 일본 수출액은 같은 기간 34%나 늘었음

- 관련링크: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6/2016060690135.html

○ 국내외 정보

European Commission, 벤조페논-3 사용규제 개정(안) (2016.5.27)

- EU집행위원회에서의 사용규제 개정(안)은 허용가능 UV-필터 목록(Annex VI)에서 벤조페논-3의 최대허용농도를 기존 10%에서 6%으로 발표함

※우리나라의 경우 벤조페논-3의 최대허용농도는 5%임

- 채택 예정시기는 2016년 4분기이며, 시행 예정시기는 EU 관보 게재일자로부터 20일후임(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자료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EEC/16_2092_00_e.pdf

- 자료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EEC/16_2092_01_e.pdf

- 다운로드 링크:

https://www.kcia.or.kr/_Document/News/NEWS_020V.asp?gPage=&SearchField=&SearchValue=&OrderField=&OrderValue=

○ 해외 화장품 시장 동향

중국 해외직구 행우세 폐지에 홍콩 소비시장은 ‘녹색불’

- 새로운 세수정책, 중국 내 소비촉진 및 해외여행 시 직접구매 증가 초래할 것 -
- 럭셔리 상품, 저가 화장품, 기저귀 등 판매 증가 예상 -

□ 중국 재정부, 3월 24일 해외직구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 정책 조정안을 공식 발표

- 해외직구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전통무역과의 과세방식 차이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제정된 이번 조정안은 행우세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4월 8일부터 지역별로 선 시행 후 전국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거래는 1회 2000위안에 한하며(기존 1000위안), 연간 2만 위안 이내로 규정됨.
 - 이 한도액 내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가 없으며, 수입증치세와 소비세는 일반무역의 70% 수준이 적용됨.

□ 새로운 세수정책, 중국 내 소비 촉진 및 해외여행 시 직접 구매 증가로 이어질 것

- 가격상품을 세분화를 했을 때, 본래 세액이 50위안 미만인 상품, 건강식품, 분유 및 기저귀 및 100위안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 세율 조정으로 최종 상품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직접구매는 줄어들고 내수 소비가 늘어날 전망
- 또한, 명품가방, 시계, 500위안 이상의 식품 및 건강 식품, 분유 등 프리미엄 제품도 세수 정책 변경 후 해외직구가격이 이전보다 상향되는데, 프리미엄 제품군의 경우 중국 내에서 소비되기보다는 해외 여행 시 직접 구매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한동안 홍콩에서 소비를 줄였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장바구니가 다시금 무거워질 것으로 기대됨.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홍콩 코즈웨이베이 모습



자료원: discoverhongkong

□ 최근 홍콩 내 중국 관광객 발길 뜸해

- 2015년 2월 홍콩 방문 전체 여행객은 총 4296만 명으로 전년대비 20.5%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여행객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내륙 여행객 감소(-26%)에서 기인함.
- 중국 내륙 여행객은 작년 6월 이후 올 2월까지 9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특히 이중 자유 여행객이 크게 감소해 2월 자유 여행객은 1959만 명으로 전년보다 35% 이상 감소함.
- 홍콩 내 반중 시위 및 중국 내에서 저렴하게 해외 직구 증가 등에 따라 홍콩을 찾는 중국 방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졌으며, 이에 따라 홍콩 소비시장도 침체됨. 특히, 2016년 1~2월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구매하는 귀금속, 시계, 고가 선물 등의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24.2% 급감했음.

□ 새로운 세수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소비자 반응

- 상하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과세법은 중국 사람들의 홍콩 내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며, 특히 브랜드 향수, 명품가방 등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기존 과세법의 경우 럭셔리 상품에는 20~30%의 행우세만 부과됐는데 이제는 비용이 거의 2배가 됐다”고 함.
- 한 PwC 파트너는 “홍콩의 면세 럭셔리 제품, 쇼핑물들이 다시 중국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될 것이며, 새로운 정책은 홍콩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나 병행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분유, 저렴한 일용품의 경우 가격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 Hu Wei 홍콩 국경간상거래협회 중국 지역 본부장은 “새로운 정책이 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해 수요가 많이 떨어질 것이며, 이는 홍콩과 선전 사이의 병행수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함.
- 홍콩에서 아기 기저귀를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직구하고 있다는 한 선전 소비자는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기저귀의 가격변화를 지켜볼 것이며, 가격이 홍콩에서 판매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비싸지면 홍콩에 가서 직접 구매할 것”이라고 함.

□ 시사점

- 홍콩 소비시장 개선에 한국 화장품, 식품, 패션 제품 판매도 늘어날 듯
 - 중국 해외직구 세수정책 조정안 발표에 따라 중국 해외 직구에 몰렸던 수요의 급성장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며, 세금 부담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구매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가피함. 그러나 이는 홍콩 소비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럭셔리 상품뿐만 아니라 저가 화장품의 경우 증치세 17% 외에도 소비세 21%도 과세로 바뀌면서 저가 메이크업 상품의 해외직구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홍콩에 진출해 있는 중저가 한국 화장품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Daily, discoverhongkong 및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2016. 4. 20 〉

법령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법령 정보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12호, 2016.06.01.)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일시적 염모용 화장품 등에 사용가능한 색소 25종을 신규로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함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목록에 일시적 염모용 화장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종의 색소를 신규로 추가(안 별표 1)
 - 별표 1 타르색소와 별표 2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를 통합(안 별표 1)
 - 별표 3 화장품의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과 별표 4 화장품의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통합(안 별표 2)
- 우리협회에서는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2016년 6월 17일(금)까지 수렴하고 있음

※ 상기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 제정에 따른 협약서 제출 안내

- 협회에서는 화장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씻어내는 제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을 제정함
 - 동 협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씻어내는 제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서도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협약서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 이메일(jenko@kci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율규약 및 협약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업무추진현황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우리 협회 '성분명표준화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10차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21개의 화장품 성분명을 표준화하였다.

성분명위원회 표준화 명칭 (2016. 10차)

연번	성분명	영문명
1	녹각추출물	Deer Antler Extract
2	눈꽃동충하초균사체/약모밀잎발효추출물	
3	니코티노일에스에이치-노나펩타이드-3	Nicotinoyl sh-Nonapeptide-3
4	니코티노일에스에이치-펜타펩타이드-4	Nicotinoyl sh-Pentapeptide-4
5	니코티노일트라이펩타이드-47	Nicotinoyl Tripeptide-47
6	니코티노일트라이펩타이드-48	Nicotinoyl Tripeptide-48
7	락토바실러스/공치살발효여과물 * 이명으로 추가 : 락토바실러스/과메기발효여과물	
8	마운틴페퍼잎추출물	Tasmania Lanceolata Leaf Extract
9	메틸메타크릴레이트/피이지/피피지-4/3메타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Methyl Methacrylate/PEG/PPG-4/3 Methacrylate Crosspolymer
10	벤질설풀D-세릴호모페닐알라닌아미디노벤즈아마이드아세테이트	Benzylsulfonyl D-Seryl Homophenylalanine Amidinobenzamide Acetate
11	석류씨오일하이드록시페네틸에스터즈	Punica Granatum Seed Oil Hydroxyphenethyl Esters
12	에틸페닐알라닌아미도폴리감마-글루탐릭애씨드	Ethyl Phenylalaninamido Polygamma-Glutamic Acid
13	퀴스토세이라 콤프레사추출물	Cystoseira Compressa Extract
14	클루이베로미세스/락토바실러스/락토코쿠스/류코노스톡/효모우유발효여과물	Kluyveromyces/Lactobacillus/Lactococcus/Leuconostoc/Saccharomyces Milk Ferment Filtrate
15	타피아트리잎추출물	Uapaca Bojeri Leaf Extract
16	파에오놀	Paeonol
17	페릭설페이트	Ferric Sulfate
18	폴리글리세릴-3코코에이트	Polyglyceryl-3 Cocoate
19	폴리쿼터늄-50	Polyquaternium-50
20	함경딸기캘러스추출물	Rubus Arcticus Callus Extract
21	효모/고초균/토란알줄기발효물	

○ 교육,세미나,행사 소식

○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원,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 및 인증컨설팅” 실시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원(원장 최상숙)에서는 CGMP의 확산과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GMP전문인력 양성하고자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 및 인증 컨설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으로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수입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GMP 요구가 증가하고,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CGMP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화장품산업을 더욱 더 발전하게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GMP전문인력 양성과 CGMP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 및 인증 컨설팅」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 교육 및 컨설팅은 중소규모 CGMP 인증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단계별(기본, 심화,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 희망사에 현장 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화장품 GMP 평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은 화장품 GMP 관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GMP 준비를 위한 서류 작성 방법 등을 교육 하고 운영 등과 관련하여 시범운영을 통한 보완 및 평가를 한다.

교육 및 컨설팅의 내용은 ▲GMP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교육(기본과정) ▲GMP 제조소의 기준 및 제조관리(심화과정) ▲화장품 GMP 필수 사항 등 세부내용(실무과정) ▲ GMP 준비를 위한 조직 및 체계 정립, 조직 및 체계에 따른 임무 등, 시설 등에 대한 조언(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 및 인증 컨설팅」은 선착순 마감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중소규모 CGMP 인증 희망기업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무자 또는 관련 업무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 해외에서의 화장품 지식재산권 보호(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안내

- ◆ 우리협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불법모조품으로 피해가 많은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이에 모조품 유통 현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①**침해실태조사단 운영 지원**(대상국가: 중국, 태국, 홍콩) ②**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③**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세부사항 및 신청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 게시글 『16년 K-BRAND 보호 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 ②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과 ③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은 수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고정은 대리(Tel : 02-761-4203, Email : jenko@kcia.or.kr)

① 침해실태조사단 운영 지원

- 중국, 태국, 홍콩 등지에서 모조품 유통 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침해실태조사단’을 구성 및 현지 파견하여 모조품 유통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지원

②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

- 현지 침해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모조품 유통 관련 침해 실태 조사 및 신청사에서 원할 경우 현지 정부 기관의 행정 단속 지원

※ 침해 조사 대상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 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방	☐ 분쟁예방 전략 (현지화네이밍 등)	국내 상표의 현지화 네이밍 컨설팅,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대응	☐ 무단 선등록 대응전략 ☐ 권리행사전략	해외 무단 先등록 상표·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 무효, 회수(협상) 지원

※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 2016년 중국광주화장품미용박람회 한국관 참가 신청 안내

- ◆ 우리협회는 중국광주화장품미용박람회에 매년 국가관으로 참여하여 중국화장품 시장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2016년도 중국광주화장품박람회(2016. 9. 4 ~ 9. 6)는 최근 한층 강화되는 중국 화장품 제도 변화에 대응할 역량이 있고 중국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 ◆ 이에 2016년 중국광주화장품박람회의 한국관 참가사를 모집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2016년 6월 15일(수)까지 우리협회(담당자: 임종근 부장 rootim@kcia.or.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참가신청 : www.sme-expo.go.kr에 신청후 붙임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

(FAX 02-782-6659, e-mail : rootim@kcia.or.kr)

나. 신청기간 : 2016. 6. 15.(수)까지

다. 신청금 납입 : 3,000,000원(신청규모와 관계없음)

라. 계좌번호 : 816937-04-010978(국민은행)

(예금주 : (사)대한화장품협회)

마. 참가 신청규모 : 신청규모 제한 없음(최소 신청 규모 12㎡)

※ 신청금은 참가사 선정에서 탈락시 환불되며, 참가사 확정된 후 참가를 포기했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신청금은 추후 참가비에 포함됨)

바. 담당자 : 임종근 부장 (e-mail : rootim@kcia.or.kr Tel 02-785-3898)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귀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서울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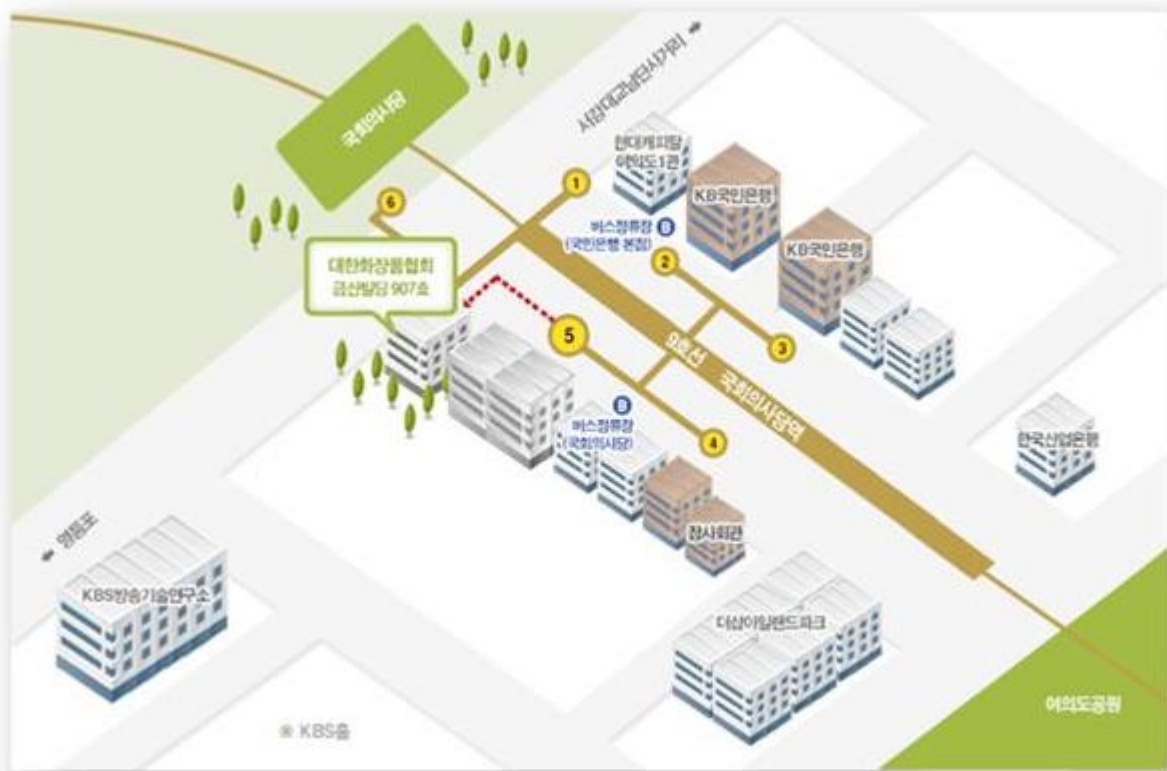
창립 13주년(2003. 6. 1)



◦ 추후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에 협회 회원사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행사나 구인, 신제품에 대한 홍보 등 코스메틱리포트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연락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진행된 행사 및 진행 예정 행사, 신제품 소개, 구인 등
- 작성방법 : A4 1매 이내(줄간격 180, 글씨 12포인트 기준)
- 자료제출 및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02-785-7985, jacklbs@kcia.or.kr)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